

## 2020년 세계 건설시장, 12.7조 달러 규모 전망\*

- 신흥개발국이 성장 견인, 키워드는 '녹색건설' -

### ■ 2020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 약 12.7조 달러로 전망

- 2008년 기준 세계 건설시장은 7.5조 달러 규모로 추산됨.
  - 북미, 아시아, 서유럽권역이 각각 1조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.
- 2020년 세계 건설시장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개발국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
  - 2008년 기준으로는 선진국 시장이 전체 시장의 약 55% 비중을, 신흥개발국을 포함한 여타 시장이 45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  - 2020년 세계 건설시장은 12.7조 달러 규모로서, 신흥개발국이 55%, 선진국 시장이 45%의 비중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■ 중국, 인도 등 신흥개발국이 성장 견인

- 세계 경제에 있어 중국과 인도가 가지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. 이러한 영향은 건설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조사됨.
  - 중국 건설시장은 2020년에 약 2.5조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. 이는 전세계 건설시장의 19.1%의 수준으로 미국 시장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되는 것임.
  - 하지만,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은 건설사업 리스크가 높은 위험 국가이기도 함.
- 브라질은 2014 월드컵과 2016 올림픽 개최로 인한 성장 수요가 높아 고성장이 기대됨.
- UAE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택·부동산시장이 타격을 입었지만, 인프라 부문의 성장 수요가 여전히 높은 지역으로 평가됨.
- 동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진 러시아는 2020년에는 약 3,350억 달러 규모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 한편 폴란드는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의 하나로 EU에서 지원되는 인프라 펀드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\* 2020년의 해외 전망 부문은 다음의 두가지 보고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.  
 Global Construction 2020, Global Construction Perspectives & Oxford Economics, 2009. 11  
 Global Construction Outlook, Globalinsight, 2009

■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시장만 성장 지속할 듯

- 그 동안의 성장을 견인해온 대부분 선진국 시장의 성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, 미국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특이사항임.
  -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택 부문이 매우 악화되었지만, 회복추세에 있으며, 녹색 건축시장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
- 서유럽은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 부족으로 인해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
- 일본도 인구 감소와 정부 부채로 인한 SOC 투자 감소로 인해 저성장 지역으로 평가됨.
  - 시장 규모에서 2003년 중국에 추월당했으며, 5~10년 내 인도에도 뒤쳐질 것으로 전망

■ 토목시장이 향후 시장 주도할 것으로 예상돼

- 토목시장은 2008~18년 간 연평균 6.7% 수준으로 성장 예상
- 건축시장은 2008~18년 간 연평균 2.4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 다만, 2013년 이후부터 성장률이 다소 상향된 4%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됨.
  - 건축 부문은 현재 전세계적인 녹색 이슈와 맞물려 녹색 빌딩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가고 있어 이러한 전망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- 플랜트시장은 2008~18년 간 연평균 4.5%의 성장을 기대함. 2013년 이후에는 5.5% 이상 성장할 것으로 조사됨.
  - 원전,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부문과 가스, 정유 등 화공플랜트 성장이 높을 것으로 전망

■ 주요 이슈는 녹색과 혁신

- 향후 시장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녹색 건설로 인식되고 있음.
- 녹색과 같은 새로운 건설 기조, 사업 환경의 국제화로 인한 경쟁 심화와 리스크 증대, 수익성 압박은 자연스럽게 건설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음.
  - 스마트 친환경 건설기술, 생산방식과 프로세스의 혁신, 정보화 관리기술의 도입 확대와 관련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.

최석인(연구위원-sichoi@cerik.re.kr)